

2008

가을호
신여덟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푸른
우리의
마음



www.kclf.org

사랑과 풍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정 구 성

메리츠화재 나눔경영 사무국장

강 렬히 내리쬐던 한여름의 햇빛도 이제 누그러지고,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소아암 어린이의 가정에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풍요를 나누는 가을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병마보다도 병상에서 고독하게 병을 이겨내야 하는 외로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힘차게 뛰어 놀고, 장난치며, 즐겁게 웃고 싶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웃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펀드 조성하고 함께 매칭그랜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작지만 소중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나중에는 아이들의 입가에 웃음을 되찾아 주는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의 마음 속에도 높고 푸른 희망이 영글어가는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에게 여행은 소중한 추억뿐 아니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올 여름,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가족은 동해 바다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수연이가 클 때까지 가보기 힘들 것 같은 바다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달력을 쳐다보며, 바다 보러 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가족끼리의 야외활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이나 설레어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한 켠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혹시 열이라도 날까 약도 준비하고, 배알이라도 할까 보릿물을 싸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오는 가운데 출발하였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초록의 산, 굽이굽이 흐르는 강, 힘차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며 진짜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시간의 여정 끝에 설악산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도 타고, 대포항에 가서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아이가 바다의 파도를 보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다음 날 우리는 해수욕장에서 파도를 느끼며 모래성을 쌓고, 쌓고, 또 쌓았습니다. 수연이의 입가에서는 내내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수연이는 병원 밖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돌아오면서 “나 안 아프고 병원에 안가면 또 오자”고 했습니다. 수연이에게 빨리 나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는 1박 2일 동안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수연이에게 여행은 성숙 이상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갖도록, 그리고 내일을 선물해 주신 후원처와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수연이는 2006년 10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입니다.

치료로 인한 소아암 어린이들의 정서적 변화와 대처방법 - 2

(1) 학령기 아동 (만 7~12세)

1 정서적 상황

이 시기의 아이는 근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새로운 책임감을 맡는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며, 보다 독립적이 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이 시기동안 근면성을 획득하는데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근면성 대신 부적절감과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또래 관계와 또래의 인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들은 말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아이가 알고 이해한 것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2 대처방법

하나, **질환과 관련되어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다양한 질환의 종대상, 치료의 잠재적인 위험, 손상의 일생에 걸친 결과 등의 개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잘 알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동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대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정직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는 질환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호자들은 아이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됨으로써 두려움과 염려를 표현할 기회를 갖고, 잘못된 추측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치료로 인해 아이는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호자는 가능한 아이가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 **비구조화된 놀이를 통해 아이의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과 예측력을 증강시킵니다.**

놀이는 아이가 심각한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일시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방안이 되며, 정서를 발산할 수 있는 출구도 됩니다. 아이에게 연령에 맞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없는 아동까지도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놀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 호스피스’에서 발췌

(저자: Ann Armstrong-Dailey, Sarah Zarbock / 역자: 문영임 외 6인 역)



▶ 놀이치료란?

인간 내부에는 성숙, 독립,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적절한 성장환경의 제공으로 인해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에서는 아동이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아동에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동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격려받습니다. 또한 놀이감을 통해 무의식적인 감정과 긴장, 불안을 표현하여 완화함으로써 아동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놀이치료란 아동에게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을 이해하여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 10년 만에 꽃미남으로 귀환하다



박 동 옥

1984년생
1994년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
1998년 치료종결
2008년 Seattle University 졸업

미국유학을 마친 동욱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여동생 은솔씨와 함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내내 아이같은 해맑은 웃음을 쏟아내던 꽃미남 동욱씨와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진 은솔씨, 멋진 남매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하 재단) :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동욱(이하 동욱) : 한국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예전에 치료받던 곳을 가보고 치료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이제 졸업했는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에 온 이 기회를 잡은 거죠.

재단 : 재단은 어떻게 아셨어요?

동욱 : 예전에 제가 치료받을 때, '백혈병어린이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더듬어 114에 물어봤더니 그런 이름은 없다고 하면서, 이 곳 전화번호를 알려 주더라고요.

재단 : (웃음) 맞아요. 재단의 전신이 '백혈병어린이후원회'였어요. 2000년 12월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바뀌었고요. 그럼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나요?

동욱 : 치료받으면서 후원회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김중서 콘서트에 간 거랑, 무슨 가족캠프 같은 곳에 갔었던 것 같아요.

박은솔(이하, 은솔) :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통나무집 같은 데였는데, 오빠랑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

재단 : 예전 가족캠프 사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인터뷰 도중 우리 모두는 급작스럽게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옛 가족캠프 사진을 들추며 보물찾기 하듯 남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 호! 찾았습니다. 1995년 가을날 가족캠프 사진 속에서 꼬마 동욱과 은솔은 지금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계신 젊은 어머니의 모습도, 늘 일로 바쁘셨던 아버지도 사진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은솔 : (아버지를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는) 아버지도 오셨었네요. (웃음)

동욱 : 아버지는 늘 바쁘셨는데 캠프까지 오셨는지는 몰랐어요. 이 통나무집 기억이 나요. 신기하네요.

재단 : (어린 동욱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에요. (웃음)

동욱 : 사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웃음) 아마도 지금 재



단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훗날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재단 : 동욱씨는 치료과정 중, 어떤 기억들이 남아 있나요?

동욱 :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피병인 줄 알더라고요. (웃음) 병원에 가서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죠. 어머니께서는 의사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오셔서 '동욱아, 백혈병이래. 하지만 치료만 잘 받으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는단다. 치료 받는 중에는 머리카락도 빠질 거래.' 하시면서 진단명, 치료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70%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금방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이러한 침착하고 자세한 설명이 치료받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재단 :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은솔 : 오빠, 나도 그게 참 궁금했어. 병원에서 뭐 하면서 지냈어? 난 병원에 한두 번 오빠 보러 간 기억이 있기는 한데 뚜렷하지는 않아, 늘 오빠랑 엄마가 뭐하고 있을까 궁금했어.

동욱 : 우선 병원에 있으면, 힘이 없어. 그래서 거의 누워 있지. 누워 있으면서 아마 게임도 했겠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병원교회에 가고 병동을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 또 그때는 병원 구석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가 매일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다 주시고는 했어.

재단 : 은솔씨도 오빠가 치료받으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나요?

은솔 : 저는 오빠가 아프면서 외갓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오랫동안 엄마를 못 보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엄마랑 떨어져 지내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할머니와 외삼촌 가족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악몽도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막내딸로 사랑받아왔는데, 오빠가 아프고 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오빠한테 쏠리는 것을 보고 좀 섭섭했어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했지만,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제들에게도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갖고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지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동욱 : 동생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프기는 했지만, 늘 어머니께서 제 옆에 계셔서 돌봐주니까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고 나서 아무래도 어른들이 저를 먼저 챙겨주고 신경 써주시니까, 동생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겪어서 그렇지 제 동생은 일찍 끝 것 같아요. 자립심이 굉장

나는 소중한

소개의 글

동화책 “나는 소중한”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권’이라는 말 한마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나’를, ‘너’를, 그리고 ‘우리’를 소중히 아끼게 하는 책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그림 역시 인권이라는 다소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어린이들은 올바른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숨 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

여러분은 자신이 여러 생명들과 연결된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엄마의 생명과 아빠의 생명이 땀어져



‘나’라는 생명이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것을, 먼 옛날부터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이 땀어져 나에게로 이어져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자 소개

- 글쓴이 - 이와카와 나오키
일본 도쿄대학교 문학부 졸업, 대학원 심리학과 교육학 전공. 현재 사이타마대학교 교육학부 조교수로 일함. 전문 분야는 커뮤니케이션론, 학습론, 학교론. 저서『학습의 전환』, 『인권 교육을 만든다』, 『인권 교육 매뉴얼』, 『종합학습을 배우는 광장으로』, 『나, 사상이 미야자와 겐지』 등.
- 그림이 - 기하라 치하루
일본 도쿄 출생.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그래픽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그린 책『파리지앵의 가정 요리』와 『성의 그림책』 등.
- 옮긴이 - 김선숙

장히 강하고,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잘 해쳐 나가요. 은솔이는 저도 잘 챙겨줘요. (웃음)

재단 : 백혈병 진단을 받고 집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동욱 :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일단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전반적으로 가족의 생활양식이 건강 위주로 바뀌고,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제가 아픈 이후로 신앙이 더 견고해졌어요.

재단 : 치료받는 동안 학교생활은 어떻게 했나요?

동욱 : 치료를 시작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었지요. 그래도 틈틈이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공부도 하고, 과외도 했어요. 입원 중에는 담임선생님께서 병문안도 와주시고, 반친구들도 단체로 편지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학교로 돌아갔을 때는 친구들이 머리카락이 없다고 놀리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염려해 주고 스스럼없이 대해 주었지요. 아마도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미리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친구들을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러한 도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치료 중에도, 그리고 치료를 마친 후에도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학교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재단 : 유학생활은 어땠나요?

동욱 : 처음에는 동생과 둘이서 미국에 갔어요. 부모님은

2년 후에 오셨어요.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남매 간에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애가 깊어졌어요. 언어를 습득하는데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단 : 치료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료받았던 일들에 대해 말하게 돼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백혈병으로 치료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제 여자 친구도 알고 있죠. 저는 치료사실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을 숨긴다면 그건 자기 삶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전 제 삶의 모든 과정이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재단 : 동욱씨, 은솔씨의 말씀을 들으니, 가족들 모두가 암 치료과정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든 시기였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동욱씨와 은솔씨를 너무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옆에 와계시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동욱씨와 은솔씨는 마침 희망美所 소아암센터를 방문한 어머님들과 즉석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치료종결 후의 생활 등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였지만, 완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이 행복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희망美所 소아암센터에서 더 많은 완치자를 만나보기를 기대합니다. (***)

어느새 훌쩍 커버린 내 아들의 이야기



철이 없어 마냥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나의 아들 중현이가 재단의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형제캠프 기간 동안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내용을 의젓하게 적었습니다. 참가하기 전에 쑥스럽다던 중현이, 처음 보는 누나들과 동생, 또 다른 친구와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2박 3일의 형제캠프를 씩씩하게 다녀왔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입니다. 아픈 동생에게만 관심을 보여 나의 아

들 중현이가 참 많이 마음 아팠을 텐데, 캠프에 다녀 온 중현이는 동생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동생을 도울 수 있는지를 오히려 아빠인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며 잔소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아이를 캠프에 보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들어 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위로가 됩니다. 여러 아픈 친구들의 가족을 나의 식구처럼 나의 아들, 딸처럼 여기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모든 분들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린이가 빨리 치료가 끝나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주에서 중현이 아빠가 씁니다.



* 형제캠프는

2001년부터 매년 여름,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진행하는 재단 직원, 참가하는 아동, 그리고 부모님 모두에게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은 외로웠던 형제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1년 ~ 2008년 형제캠프 실시 현황 >

회수	참가자 수	일시	장소	후원처
1회	21	2001년 8월 6일(월) ~ 8일(수)	한터캠프장 / 경기도 용인	행정자치부
2회	21	2002년 8월 13일(화) ~ 15일(목)	너리굴마을 / 경기도 안성	행정자치부
3회	26	2003년 8월 2일(토) ~ 4일(월)	너리굴마을 / 경기도 안성	행정자치부
4회	27	2004년 8월 10일(화) ~ 12일(목)	미리내캠프 / 경기도 양평	행정자치부
5회	33	2005년 8월 8일(월) ~ 10일(수)	너리굴 문화마을 / 경기도 안성	LG전자
6회	30	2006년 8월 8일(화) ~ 10일(목)	한화리조트 / 경기도 용인	한화국토개발(주), 한화리조트 용인, 신한카드
7회	30	2007년 8월 8일(수) ~ 10일(금)	금호화순리조트 / 전남 화순	SBS
8회	33	2008년 8월 18일(월) ~ 20(수)	한화리조트 / 경북 경주	SBS

총 221명 참석

환상의 짝꿍

매주 금요일 신촌 우체국 **호사랑의집**은 생기가 넘칩니다.

칭찬소리 한 번, 깔깔깔 웃음소리 한 번... 바로, 송이와 황인정 선생님의 일대일 수업시간에 새어나오는 소리들이지요. 이 행복한 두 시간을 위해 송이는 멀리 일산에서, 선생님 역시 먼 거리 마다않고 매주 **호사랑의집**을 찾아옵니다. 올해 초, 송이의 뒤쳐진 학업에 대한 염려로 시작된 인연이 어느덧 좋은 결실을 맺어 두 사람은 소중한 친구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담아 주고받은 연애편지^^ 살짝 공개합니다~

* 어른짝꿍이 아이짝꿍에게

천송이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송이에게

송이야 안녕~
인정 선생님이야,
편지를 쓰려니까 문득
첫 만남을 어색해하던
송이의 모습부터 떠오른
다. ^^
낯설어하던 그 모습에
처음에는 선생님도 많이

당황했었고 송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런 걱정을 뒤로한 채, 한주 한주 지날수록 점점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준 송이에게 정말 많이 고마워~

투정 한번 안 부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송이가 너무나 예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웃는 송이를 보면서, 선생님은 송이와 함께한 시간이 항상 재미있고 행복했어.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송이를 통해서 선생님도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무엇보다 값진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모습, 늘 적극적이며 무슨 일에서든 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송이의 모습 계속 간직하길 바랄게. 너무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 송이의 더 멋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하루도 선생님은 송이를 위해 기도할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다음 수업 때 예쁜 모습으로 만나자~

2008. 9. 2 인정 선생님

* 아이짝꿍이 어른짝꿍에게

황인정 선생님께 ♡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저 송이에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선생님 얼굴이 보고 싶어요. ^^ 아... 곧 보겠지만요. ㅎㅎ 선생님 만나면 허무 개그랑, 썰렁 개그, 웃긴 이야기 다~ 해 주고 싶어

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나니까 저도 많이 똑똑해졌어요. 앞으로 더 배우면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겠죠?? 아~ 빨리 공부 배우고 싶다. 어른이 될 때까지 배우면 나는 천재되겠네!^^ 선생님 덕에 저 학교에서 점수도 올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 수학 100점이었잖아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 선생님 사랑해요. ♡

2008. 9. 5 천송이 올림

일대일학습지도는

소아암 어린이와 대학생 봉사자가 일대일로 만나 치료로 인해 소홀했던 공부도 하고, 서로에게 마음의 힘을 더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촌 우체국 **호사랑의집**(☎ 02-363-7671)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무엇을 버릴까?
무엇이 필요없을까?
몇년이 지나도 입지 않는 옷들은?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내 집에서
버리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게 된다.

그런 행동이 뜻밖의 효과가 있어
마음이 가벼워진다.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글, 그림 소복이
Sobang.net

머리가 빠진, 마스크를 쓴 어린이 옆에는 가지 않을래요!!

병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꽃같이 예쁜 내 아이입니다. 흰 마스크, 꽃두건을 단정하게 씌워줍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의아한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그 쏟아진 눈길 모두 받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내 아이 옆에 낯선 어린아이가 앉습니다.
“거기 앉지 말고, 이리 와.” 하며, 아이의 엄마는 차가운 몸짓으로 어린 아이를 끌어당깁니다. 내 아이를 피합니다.
마음속에 쿵... 하고 돌덩이 하나가 내려 앉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부모들이 겪는 일상을 단편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항암치료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 얼굴의 반을 가리는 흰 마스크를 쓴 어린이를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소아암 어린이를 만나면, 짧은 순간 (홀깃홀깃 쳐다보며)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우리 아이에게 전염될 거야’라는 재빠른 나름의 견해를 도출해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소아암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배워가며, 이 ‘편견’을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정정해 볼까요?

하나! 항암치료를 마치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항암치료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세포와 같은 건강한 정상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암치료를 마치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자라게 됩니다.

두울!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씩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소아암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상태에 있어,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세균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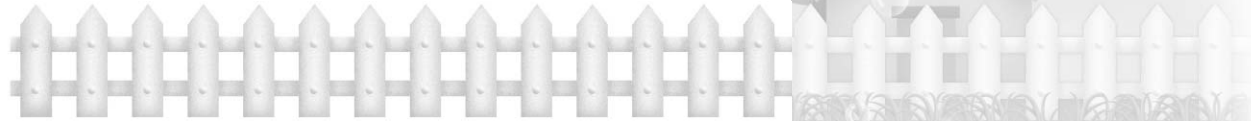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올바른 견해를 도출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올바른 견해’를 적어볼까요?

(따뜻한 눈빛으로) ‘소아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마스크를 썼구나. 지금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옆에 앉아도 되겠지? 힘든 치료를 마치면 건강해지고 머리도 다시 자라겠지? 예쁘겠다. 열심히 치료받으라고 마음속으로 격려해 줘야겠다.’

이제 소아암 어린이를 만나러 갈 준비가 다 되었나요? 위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마세요! ***



한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 집

사랑의 손길,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2일, (사)희망의리브하우스 봉사자 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을 벌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현관 방충망을 후원하고 설치해주셨습니다. 귀한 나눔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사랑 어머니교실 - 비즈공예 개강



지난 여름, 환아의 간병으로 거의 여가생활이 없었던 어머니들에게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문 비즈공예 강사인 홍귀순 선생님의 자원봉사로 '한사랑 어머니교실-비즈공예'가 개강된 것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비즈구슬을 꿰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대로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완치로 고고씹~!

쉼터 이용가족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완치"일 텐데요! 이런 희망을 담아 지난 8월, 백혈병과 싸워 이겨낸 박동욱 완

치자와 쉼터 이용가족과의 유쾌한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완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완치자의 장기를 살려 "잉글리시 파티"도 열었습니다. "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완치로 가는 열쇠라고 이야기한 완치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 완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완치로 고고씹"~!!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 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원한 나주호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40여명의 소아암 가족들은 '시원한 물놀이', '즐거움 웃음치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이 하나되는 즐거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물놀이에 신이 나 입술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춥지 않다는 물속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 매번 바뀌는 식단에 '엄마! 왜 여기는 반찬이 항상 바뀌지?'라고 주변을 웃게 만든 아이, 급류타기에서 오히려 자원봉사자를 물 먹이고 킥거리며 재미있어 하던 아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박 2일 일정 내내 소아암 가족들의 입가에 머문 미소처럼 앞으로도 모두 지금처럼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문근영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 집

소아암 어린이 직업체험 "드림 프로젝트"

지난 7월 25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소아암 어린이 직업체험 '드림 프로젝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법관, 파티쉐, 플로리스트를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원에서의 시간은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견학하고 직접 모의법정을 운영도 해 보았습니다.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루어진 파티쉐와 플로리스트 체험시간 역시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파티쉐가 되겠다는 꿈을 가득 안고 나만의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꽃으로 모든 공간을 장식하는 플로리스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고 나만의 꽃장식도 해보았습니다. 기나긴 치료기간 동안 자신이 품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었던 꿈... 그러한 꿈들에 대해 한발 다가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도움을 주신 웨스틴조선호텔 및 부산지방법원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본 행사는 (주)휴니테크놀러지스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8 혈소판 공여자 워크숍

지난 7월 11일, '2008 혈소판 공여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혈소판 헌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혈소판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혈소판헌혈에 힘써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많은 분들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많은 혈소판 공여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 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지난 7월 한사랑의집에서는 맛있는 요리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항암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현재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열혈 고등학생 이미래 양이 직접 준비해주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리교실 전일부터 장보기와 재료준비하기 등 이제까지 닦아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었지요.^^~ 함께하는 아이들도 색색으로 준비된 재료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정말 열심히 쪼물쪼물쪼물쪼물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두말할 것도 없었지요.~~ 모두들 예쁜 주먹밥도사리를 선물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나누어 준 미래! 년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될 거야!! Thank You!!



사랑이 모이는 곳

▶ 제8회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소아암 어린이 완치기원 연날리기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행사가 9월 5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약 60여명의 소아암 가족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직원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특수제작 된 완치를 기원하는 연에 소원을 적고 하늘 높이 연을 띄우는 이 행사에는 소아암 가족의 완치를 향한 의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겨운 놀이마당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 본 행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만들기

'행복한 가족! 소중한 추억!'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이 직접 소중한 추억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올해 소아암 어린이 42가족에게 총 2,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8월 현재까지 21가족에게 가족활동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이후로 처음 가족여행을 떠났다는 가족,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는 날은 처음 봤다는 가족, 내 생애 처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가족 등 많은 분들이 가족활동을 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 본 행사는 GS홀딩스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희망장학금 전달식



8월 4일, 자랑스러운 완치자들에게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소아암 치료를 끝내고, 대학에서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완치자들은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큰 꿈을 선물하였습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10명의 완치자들, 그리고 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본 프로그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08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재단에서는 치료과정의 특성상 감염의 위험이 높은 소아암 어린이에게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소아암 어린이 10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물품(향균침구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용청소기) 중 2가지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 36가족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제8회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지난 8월 18일부터 2박 3일간 경북 경주에서 '우리가 만드는 세상' 형제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캠프기간 동안 33명의 친구들은 함께 함께 행복함을 느끼고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 생기와 함께 진지함을 발산했던 모든 친구들 한명 한명에게 따뜻한 안부를 묻습니다.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지? 사랑한다!!



- 본 행사는 SBS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미술파티 했습니다.!!!

8월 1일 한여름, 삼삼오오 모여든 아이들의 섬섬옥수 같은 손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윽한 목향이 가득한 곳에서 아이들은 그 옛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료 중인 친구, 치료 종결한 친구들, 이 자리에서는 같이 마음을 나눈 미술작업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섬을 가지셨습니다. 급조된 어머니 모임은 기지를 발휘하여, 영화관람, 식사를 함께 하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셨습니다. 애써주시던 동양화 작가 박주연 선생님, 친구들의 마음 하나 하나 헤아려 큰 언니가 되어준 김현주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KRA 소아암 어린이 열공 무한도전

KRA는 소아암 어린이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2008 'KRA농촌사랑기금'으로 지원합니다.

◀ 알립니다 ▶

▶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관람

- ♣ 전시기간 : 2008년 12월 3일 ~ 12월 9일
- ♣ 전시장소 : 성보갤러리 (종로구 인사동 소재)
- ♣ 문의 : 희망美所 소아암센터 ☎ 02-766-7671

▶ 놀이치료를 실시합니다.

- 재단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치료과정 중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놀이치료를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보호자 분들의 신청 및 문의 바랍니다.
- ♣ 대상 : 5세 이상 소아암 및 재생불량반월 어린이
 - ♣ 장소 : 희망美所 소아암센터 (종로구 명륜동 4가 소재)
 - ♣ 문의 :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 ☎ 02-363-7

▶ 재단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지난 8월부터 재단의 뉴스레터가 발송되었습니다. 뉴스레터 'miso'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miso'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단의 소식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소식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해주세요.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 환아 (2008. 6 ~ 8) ♥

천사백이식비 지원환아

강준석(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1,500만원
공현석(T세포형 전립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2,000만원
김민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1,000만원
김술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00만원
김재원(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서울)	1,500만원
박기동(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경남)	1,000만원
이영미(뇌종양/서울아산병원/서울)	1,000만원
이혜은(중증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부산)	2,000만원
정다영(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인천)	1,300만원

정검다리기금 지원환아

홍창빈(망막모세포종/원자력병원/부산)	521,817원
서대현(신경모세포종/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북)	300만원
김영준(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대전)	500만원

특별기금 지원환아

1 2008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이식시, 수혜자 부담금)

정세윤(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기)	1,200만원
김석진(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국립암센터/경기)	690만원
윤예슬(급성골수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남)	1,200만원
허진우(급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690만원
공현석(T세포형 전립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690만원
강준석(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690만원
최민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1,500만원
김재원(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서울)	1,200만원
조우진(급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690만원
김유나(급성골수성백혈병/국립암센터/경북)	830만원
이혜은(재생불량빈혈/부산대학교병원/부산)	690만원
정다영(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인천)	690만원
김민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690만원

2 2007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1) 암치료비	
임주천(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1,000만원
김연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51만원
2) 재활치료비	
홍창빈(망막모세포종/원자력병원/부산)	478,183원

3 GS홀딩스

김석진(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국립암센터/경기)	1,500만원
임형성(상악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전북)	1,000만원
허진우(급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700만원
임우슬(수모세포종/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1,000만원
전창호(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부산)	700만원
임승빈(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100만원
안창준(상악모세포종/국립암센터/제주)	500만원
부성용(만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부산)	500만원
김재원(급성거핵모구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경북)	500만원
최유성(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서울)	100만원
이승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100만원

4 메릴리치증권

정세윤(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경기)	800만원
----------------------------	-------

5 론그영기금

각 400만원	
박해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이영미(뇌종양/서울아산병원/서울)	
임주천(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김용성(유인육종/국립암센터/경남)	
김선애(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경기)	

6 우체국 호사랑기금

각 300만원	
윤예슬(급성골수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남)	
조우진(급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김기문(황문근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남)	
소민석(골육종/국립암센터/제주)	
김연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김하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김선애(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경기)	
임재원(송과체모세포종/국립암센터/충북)	
강민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서울)	
김재진(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남)	
김민성(악성신경초종/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7 금오아시아그룹

조우진(급성골수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500만원
이민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100만원
강민석(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경상대학교병원/경남)	100만원
김연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100만원
강종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서울)	100만원

8 토탈소프트뱅크

윤예슬(급성골수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경남)	500만원
김하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부산)	200만원

9 메리츠화재

각 250만원	
김기문(황문근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남)	
소민석(골육종/국립암센터/제주)	

10 삼성생명아모노케트라

강종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서울)	4,113,540원
-----------------------	------------

11 누들앤부

안수민(조직구증식증/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인천)	1,460,430원
김승준(뇌양낭종양/서울대학교병원/경북)	2,000,000원

12 배재월기금

이영미(뇌종양/서울아산병원/서울)	
김용성(유인육종/국립암센터/경남)	

13 경기가족경기대회(지정기탁)

오진우(비호지킨림프종/전북대학교병원/전북)	200만원
-------------------------	-------

14 SBS기금(서울대학교병원 지정기탁)

김한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1,000만원
이승훈(버킷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대구)	1,000만원
유정원(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1,000만원
박지민(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00만원
김성현(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00만원
최민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1,000만원
임수현(악성황문양종양/서울대학교병원/대전)	1,000만원
신명재(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북)	500만원
이용석(수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00만원
김영현(생식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500만원
봉민서(간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500만원
김기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000만원

15 익영후원자

이예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300만원
------------------------------	-------

새생명통장 신규

매월 각 15만원	
강민석(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경상대학교병원/경남)	
권순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북)	
김연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김우진(유인육종/국립암센터/경기)	
김정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김홍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경기)	
노현우(중증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박유미(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변성용(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인천)	
이민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경기)	
전대열(편코니빈혈/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부산)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자 소개 (2008. 6. 1 ~ 8. 31)

만세 후원자 소식

(주)사이퍼일렉트로닉
 강미옥 구현정 김민주 김범석 김봉준
 김유성 김준익 김현정 박미화 배홍기
 안희진 정주환 조윤영 한재완

▶ 2008년 8월까지 1,985분이
 만세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천사백 후원자 소식

구재훈 김경주 김대기 김덕수 김선영
 김은지 김정태 김지연 김혜경 문성호
 박관중 박순례 박신현 박영미 박영훈
 박현정 손명빈 안정원 우지윤 원소영
 유정미 유정우 윤희정 이간비 이근주
 이기택 이상훈 이선영 이정화 이충섭
 임경희 장대영 장정애 정성미 정재복
 정훈용 조현일 조희원 최연석 최종봉
 최화진 한용석 한재만

▶ 2008년 8월까지 12,056분이
 천사백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한뜻 후원자 소식

김지연 김진형 남윤호 심준보 윤지은
 이은영 이준래 전주옥 정세은 정태경
 최길순

▶ 2008년 8월까지 928분이
 한뜻 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만세/한뜻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신한은행 : 310-03-002396

천사백 후원계좌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농협 : 029-01-170940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신한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발급되어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께서는 재단으로 발급 요청해 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 / ✉ cancer@kclf.org



사랑의 모음터

(2008. 6. 1 ~ 8. 31)

▶ 헌혈증서

강소영 (21)	권진욱 (4)	명지대학교 유통대학원 (50)
박상욱 (2)	박용우 (2)	박재택 (1)
박정훈 (86)	유한김벌리 동아리연합 (57)	전한민 (6)
정인수 (6)	채성석 (2)	한국관광공사 (42)
허진수(허호준) (19)	호서전문학교 (104)	KTF (132)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김봉숙 7,000,000	변우미 500,000	서울한강로터리클럽 440,338
윤소연 200,000	이창제 1,000,000	장일훈 7,500,000
장정애 1,000,000		

▶ 후원물품

(사)희망의러브하우스 방충망 후원 및 설치
 배성민모 감자
 삼성증권 에어컨

63시티 생일잔치
 빨간모자 피자
 임미애 도서

